

전남대병원 광주·전남 첫 심장이식수술 성공

60대 환자에 20대 뇌사자 기증
의료진 5명 5시간만에 성공
호남권 심장 이식시대 열어
수도권 통원 지역환자 큰 도움

전남대병원이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심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그동안 심장병 환자들은 심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지역 대형병원을 찾았으며, 수술 후 장기적인 치료 및 관리 등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었다. 25일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에 따르면 심장이식팀은 지난달 26일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던 이모(63)씨에게 20대 남성 뇌사자가 기증한 심장을 이식했다. 이번 심장이식팀은 순환기내과(김계훈·조재영 교수)와 흉부외과(오상기·정인석·이교선 교수) 등 5명의 의료진으로 구성,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진체제로 5시간 만에 고난이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상용 전남대병원장과 심장이식수술팀 의료진이 1호 심장이식수술 환자인 이씨의 상태를 살핀 뒤 격려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이 확장되면서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심근질환이다. 이씨는 강력한 심근 수축 약물을 사용해도 큰 효과가 없었으며, 심근 수축기능이 정상적인 상태의 절반에도 못 미쳐 심장이식 외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수술이 결심한 상태였다. 심장이식을 받은 이씨는 수술 후 4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만큼 빠르게 회복됐으며, 본격적인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다. 회복세를 유지한다면 내달 초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새 생명을 안겨준 전남대병원

의료진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건강하고 어려운 이웃도 생각하면서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수술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본격적인 심장이식 시대를 열어, 지역의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희망을 주게 됐다. 말기 심부전은 여러 원인으로 심장의 수축기능이 극도로 떨어져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들을 총칭한다. 또 폐 부종·전신부종·호흡곤란·소화불량·복수 등의 증상이 일반적이며,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이번 이식수술 준비위원장인 김계훈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말기심부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좋은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약물에 반응이 없

는 환자는 인공 심장이나 심장이식 등의 치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수술 집도인 이교선 교수는 “특히 심장이식 수술은 심장 적출 후 4시간 이상 지나면 수술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속한 수술이 필요한데, 광주·전남 지역의 심장 공여자를 쉽게 찾을 수 없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5·18재단-시민단체 갈등 봉합

재단 발전협의회·이사장 추천위 공동 구성 합의

5·18기념재단 개혁·이사장 선임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5·18기념재단과 광주 시민단체가 '5·18기념재단 발전협의회'를 공동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광주진보연대·시민단체협의회·여성단체연합·광주민예총 등은 25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협의회를 공동으로 꾸려 5·18기념재단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도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기념재단 발전협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차원에서 재단, 시민사회단체, 시, 오월단체, 설립동지회, 언론,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7월

까지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며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승인을 받은 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조직과 운영, 사업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안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산하에 각 실무책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발전협의회 운영과정에서 관련 단체는 물론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간담회, 공개 토론회, 시민공청회 등의 공론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쟁점이 되고 있는 재단 이사장 선정에 대해 “재단, 시민단체, 광주시가 공동으로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장을 추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착수

균열·부식 보완...한수원·주민 민관합동조사단 안전 점검

균열과 부식에 취약해 잦은 문제를 일으킨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작업이 시작됐다. 25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18일 새로 제작한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를 영광군 흥농읍 한빛원전 내 전용 보관시설로 들여왔다. 두산중공업이 2014년부터 만든 신규 증기발생기는 출력 1412MW, 높이 20m, 무게 540t이다. 기존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와 출력, 높이는 동일하지만, 무게는 10t 가볍고 열전달 면적은 5.1% 넓다. 전열관 수도 8340개로 126개나 더 많다. 특히 신규 증기발생기는 균열과 부식에 문제가 있었던 기존 인코넬 600 재질에서

균열과 부식에 더 강한 인코넬 690 재질로 바뀌었다. 2019년에는 같은 재질(인코넬 600)을 사용하고 있는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도 인코넬 690 재질의 증기발생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원전 측과 영광 주민, 환경단체 등으로 결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신규 증기발생기 안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고 규제기관 승인을 받아 한빛 4호기를 재가동할 예정이다. 한빛 4호기는 지난해 5월부터 증기발생기, 격납건물 철관 부식 점검 등으로 1년간 발전이 멈춘 상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8 | 해질 19:14 | 달 뜨기 15:22 | 달 지기 03:43

일교차 큰 봄날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음' 단계이니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하세요.

◇지역별 날씨(°C)

광주	구름 많음	9/23	보성	구름 많음	6/21
목포	구름 많음	10/19	순천	구름 많음	9/23
여수	구름 많음	11/20	영광	구름 많음	7/20
나주	구름 많음	7/22	진도	구름 많음	8/20
완도	구름 많음	10/21	전주	구름 많음	9/22
구례	구름 많음	6/24	군산	구름 많음	8/19
강진	구름 많음	7/21	남원	구름 많음	8/22
해남	구름 많음	6/21	홍산도	구름 많음	10/16
장성	구름 많음	7/2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안바다	서~북서	서~북서	0.5	남서~서	0.5
남해	서~북서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북동~동	북동~동	0.5	서~북서	0.5
남해	북동(동)	북동~동	0.5~1.5	서~북서	0.5~1.0
남해	북동(서)	북동~동	0.5~1.5	서~북서	0.5~1.0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20	11:34
	17:05	--:--
여수	간조	만조
	00:10	06:38
	12:51	19:10

◇주간 날씨

27(금)	28(토)	29(일)	30(월)	5/1(화)	2(수)	3(목)
☀	☀	☀	☀	☀	☁	☁
10/23	10/25	12/25	12/26	14/22	15/20	11/21

여수 공유수면 불법매립업체 적발

화양면 이목리 일원 700㎡...여수해경 집중 단속

여수해양경찰청은 25일 해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상구조물 제조업체 공장장 A(53)씨를 불법 매립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일원 해안가 공유수면 700㎡를 불법 매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형해상구조물(바지선·450㎡ 규모)을 항포구 앞 100m 해상에 장기 보관·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공장 제품을 해상에서 납품하기 위해 지자체 승인 없이 해안가를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공유수면 내 선박·바지 등의 해상구조물 장기 방치, 무단 점·사용은 선박교통장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오늘 광주 학교밖 청소년 입시설명회

검정고시자 맞춤형 안내...한국대학교육협 1대1 상담

'2019년도 대비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설명회'가 26일 광주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여성가족부가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광주(4.26), 서울(4.30), 대전(5.2), 부산(5.3) 등 총 4개 권역에서 차례로 열리며, 8월에는 인천, 전남, 경북 등에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설명회에서는 2019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사항,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학 특별전형 및 특성화학과, 수시전형 지원전략 등을 안내하며, 설명회 참석 전 온라인(대입정보포털 www.adiga.kr)으로 대학전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명회장에 1대1 상담인력 2명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수도권 설명회에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여성가족부가 함께합니다.

현재 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 를 여는 청소년

201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2018. 5. 24(목)~5. 26(토)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

주최 | 여성가족부 | 전라북도 | 군산시 | 주관 | KW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후원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보훈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계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문화재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특허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